

익산형 1호 게스트하우스 오픈 앞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광객 안심 게스트하우스 자생 지원사업 완료
70~80년대 컨셉으로 허가 등록 완료되면 외국인 대상 시범 운영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인 '2020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을 통하여 수행한 '관광객 안심 게스트하우스 자생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익산형 1호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관광객 안심 게스트하우스 자생 지원사업'은 지난 해 지역 내 체류관광객 유치 및 야간 관광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광객이 머물고 휴식할 수 있는 숙박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팀, 숙박업 1팀 등 2개 팀을 공모 선정하여, 공간 컨설팅, 교육 및 선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익산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첫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21년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있다.

먼저 공간조성이 완료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 '나, 지금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순수 가정집으로 옛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70~80년대 컨셉의 게스트하우스로 현재 시청 관할부서의 허가 등록을 앞두고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 할 계획이다.

야간체류관광 활성화 및 도보관광 증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규모 개별관광객 중심의 관광 형태 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군산, 전주 등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2021년에는 지역 맞춤형 게스트하우스로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장성국 대표이사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묵을 수 있는 도심형 익산 게스트하우스는 지역 관광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공간으로 앞으로도 익산만의 색깔을 지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익산형 1호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장수가야 역사 드높인 3인 감사패 수여

백정관 · 양만용 · 송상원 씨

장수군은 장수가야의 옛 이름인 반과가야를 찾고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선 주민 백정관(동가야마을), 양만용(남산마을), 송상원(사곡마을)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들은 장수군 최초 국가사적 '동촌리 고분군(제552호, 2019.10.01.)'과 삼봉리 고분군, 침령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마을의 전·현직 이장으로, 역사문화의 불모지였던 장수군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백정관 동가야마을 前이장은 지난 2011~2019년까지 동촌리고분군 국가사적 지정과 동촌마을에서 동가야마을로 마을 명을 바꾸는 등 마을주민의 가사사랑을 선두적으로 이끌었다.

양만용 남산마을 이장은 2001년부터 마을 이장으로 장수군 내 최대 고분군인 삼봉리 고분군의 발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에 적극 동참해 삼봉리고분군 도기념물 지정(2016년)에 기여했다.

송상원 사곡마을 前이장은 침령산성 발굴 조사를 위해 주민 설득 및 차량 진입로 사용 협조, 침령산성 도기념물 지정(2020년), 국가사적 지정 추진에 앞장서며 침령산성을 보호하는데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장수가야 지킴이로 활동하며 자발적으로 주민을 모아 문화유산 돌봄사업단을 구성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가야의 역사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장수가야의 위상을 높이는 역사 조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맞춤형 공예 디자인 매니지먼트' 참가자 모집

3월 12일까지... 신상품 개발 · 제품 리뉴얼 분야 각 4팀씩 총 8팀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맞춤형 공예 디자인 매니지먼트' 사업 참가자를 오는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그간 지역 공예인 간담회와 공예공방 현장을 돌아보며 공예인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중 "기획부터 제작까지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수공예품이 공간 품과의 경쟁에서 이겨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싶다"는 게 현상 다수 의견이다.

'맞춤형 공예 디자인 매니지먼트' 사업은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기획했으며, 실제 공예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판매하는 등 상품화 영역을 지원한다. 지역 공예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상품 개발 분야와 제품 리뉴얼 분야 각 4팀씩 총 8팀(업체)을 공모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1:1 전문가 컨설팅 ▲상품 개발비 ▲결과물 전시 등이며, 전주공예품전시관의 공예품 판매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상품성 높은 결과물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품 개발비는 5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금액 중 20%는 자부담금으로 매칭돼, 업체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공예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방운영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본 사업은 일회성 자금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결과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상품제작 및 판매가 가능한 공예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수공예품은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명인몰)에 입점돼 상품판매 기회가 제공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예인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제출하면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진태 원장은 "이번 사업은 제품개발뿐 아니라 판매처에 유통돼 시장성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역량 있는 전라북도 공예인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2-8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아와 제품 리뉴얼 분야 각 4팀씩 총 8팀(업체)을 공모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1:1 전문가 컨설팅 ▲상품 개발비 ▲결과물 전시 등이며, 전주공예품전시관의 공예품 판매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상품성 높은 결과물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품 개발비는 5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금액 중 20%는 자부담금으로 매칭돼, 업체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공예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방운영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본 사업은 일회성 자금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결과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상품제작 및 판매가 가능한 공예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수공예품은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명인몰)에 입점돼 상품판매 기회가 제공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예인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제출하면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진태 원장은 "이번 사업은 제품개발뿐 아니라 판매처에 유통돼 시장성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역량 있는 전라북도 공예인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2-8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예술단-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

전주시립예술단(단장 최명규)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창의적인 예술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립예술단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9일 전주부시장실에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공유와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상발전 ▲예술작품 기획 및 제작 ▲운영방식과 사업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등에 협력기로 했다.

최명규 단장은 "이번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문화예술교류는 지난해 시립극단의 '헬릿'과 올해 시립교향악단과 공동 개최한 '신년음악회'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의 폭을 넓혀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예술단(단장 최명규)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창의적인 예술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립예술단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9일 전주부시장실에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공유와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상발전 ▲예술작품 기획 및 제작 ▲운영방식과 사업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등에 협력기로 했다.

최명규 단장은 "이번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문화예술교류는 지난해 시립극단의 '헬릿'과 올해 시립교향악단과 공동 개최한 '신년음악회'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의 폭을 넓혀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연수 단원 채용

15~22일까지 4명...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 참여 기회 제공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에 함께 할 연수 단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02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 공연 예술인을 공개 채용해 전북 대표공연인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실연 분야 3명과 경영 분야 1명 등 총 4명을 채용한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jy27125@jct.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경영 분야는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만 3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장애인으로 실연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예술관련 중·고·대학교 등)이거나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교육과정(3개월 이상) 이수자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고, 경영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또, 실연 분야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우선 채용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만 가능하다.

실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이뤄지며, 오는 3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근무는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한다.

한편,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은 판소리 기반의 융합공연을 제작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 4회, 연간 70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에 함께 할 연수 단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02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 공연 예술인을 공개 채용해 전북 대표공연인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실연 분야 3명과 경영 분야 1명 등 총 4명을 채용한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jy27125@jct.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경영 분야는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만 3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장애인으로 실연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예술관련 중·고·대학교 등)이거나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교육과정(3개월 이상) 이수자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고, 경영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또, 실연 분야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우선 채용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만 가능하다.

실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이뤄지며, 오는 3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근무는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한다.

한편,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은 판소리 기반의 융합공연을 제작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 4회, 연간 70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